

미국 딥페이크 관련 법안 동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김유미 연구원

요약

딥페이크 기술이 정치적 조작, 명예훼손, 성적 콘텐츠 생성, 사기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각 주에서 제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방 차원의 법안이 처음으로 제정됨.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딥페이크 관련 기존 법안을 보완·강화한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킴. 이러한 법안의 시행으로 딥페이크 사기 및 명예훼손 사건의 증가와 새로운 범죄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져 보험산업의 대응이 요구됨.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 예방 시스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 2024년 8월, 미국은 딥페이크(Deepfake) 범죄 피해자를 위한 민사 구제책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어, 성적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방 차원의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됨
 - 미국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5월 뉴햄프셔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성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전송되어 선거의 혼란을 초래함
 -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0대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 공유되어 사회 문제로 부각된 바 있음
 - 디피언스 법안(Defiance Act)¹⁾은 미국 연방 차원의 법안으로 딥페이크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 배포, 수신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고 성적 콘텐츠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됨
- 한편,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딥페이크 관련 선거 규제, 아동 성 착취물 제작 금지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법안이 통과되어, 2019년에 제정된 기존 법안을 보완 및 강화하였음²⁾
 - 법안 AB2355는 선거 12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허위 정보를 담은 딥페이크 콘텐츠의 유포를 금지하고 AI로 생성된 자료 사용 시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함
 - 선거 당국이나 후보자가 딥페이크 콘텐츠로 피해를 입증할 경우, 관련 제작자나 배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 현행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 실존 인물을 묘사하지 않은 AI 생성 이미지는 처벌이 어려웠으나, AB2839 법안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자체를 금지하고 제작자뿐만 아니라 배포 및 소지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함

1) Disrupt Explicit Forged Images and Non-Consensual Edits Act

2) Voice of America(2024. 9. 1), "California lawmakers approve laws banning deepfakes, regulating AI"

- AB459 법안은 배우, 성우, 연주자 등 문화예술인이 AI 복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콜센터 근로자의 핵심 업무에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함
 - AB2655 법안은 최근 영화 및 광고에서 사망자의 디지털 클론³⁾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자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디지털로 복제·가공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 미국의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주마다 다르게 제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40개 주 이상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이 중 9개 주에서 형사 처벌 규정이 존재함⁴⁾
- 딥페이크 관련 법적 제재 강화로 기존에 묵인되었던 딥페이크 사기 및 명예훼손 사건들이 부각될 수 있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응이 요구됨
- Deloitte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사기로 인한 금융 손실은 2023년 123억 달러에서 2027년 4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⁵⁾
 - 최근 CEO의 음성이 딥페이크로 조작되어 큰 액수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기업들은 딥페이크 사기에 대비하여 더 많은 사이버 보험을 구매할 가능성이 큼
 - 딥페이크 기술은 유명 인사나 정치인을 타겟으로 한 명예훼손에 악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의 빠른 확산으로 피해자나 기업의 신뢰도·평판에 타격을 줄 경우 상당한 피해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명예훼손 보험이 고려됨
- 보험회사들은 보험 청구의 디지털화에 따른 AI 및 자동화 시스템 이용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노출되고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허위 청구, 보험 사기 식별을 위한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 2025년까지 보험 청구의 70%는 비대면 자동처리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회사들은 AI를 활용하여 문서, 영상, 음성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이나 합성된 흔적을 감지하여 허위 청구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⁶⁾
 - 알리안츠(Allianz)는 머신러닝 도구 "Incognito"를 개발하여 허위 데이터를 감지하고 사기성이 있는 보험 청구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170만 파운드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남⁷⁾
 - 취리히 보험회사(Zurich Insurance)는 전통적인 규칙 기반 엔진과 AI 기반 엔진을 결합하여 이상 패턴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지 및 분석하는 내부 개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청구를 줄이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있음⁸⁾
 - 사이버 보험회사 코얼리션(Coalition)은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LLMs)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언더라이팅 정밀화 및 위험 세분화와 AI로 인한 보안 실패, 데이터 침해해 분석하여 허위 청구와 사기성 거래를 식별함⁹⁾

3)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외모, 목소리, 행동, 사고방식 등을 복제해 디지털 형태로 재현하는 기술임

4) 현재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일리노이주, 뉴욕주, 플로리다주, 버지니아주, 사우스다코타주, 하와이주, 인디애나주, 워싱턴주에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5) Insurance Business(2024. 7. 15), "Shielding from deepfake risks - how exposed are FIs and banks?"

6) Insurance Journal(2024. 7. 17), "Viewpoint: Deepfake Fraud Is On the Rise. Here's How Insurers Can Respond"

7) Allianz(2023. 12. 8), "Allianz develops machine-learning 'Incognito' tool to support growing fraud claims"

8) Zurich(2024. 6. 10), "AI poses challenges, offers tantalizing solutions to insurers fighting fraud"

9) Business Wire(2024. 3. 26), "Coalition Adds New Affirm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Endorsement to Cyber Insurance Policies"